

[현대소설 TEXT 분석 필기 노트](by.이승모T 현장 강의용)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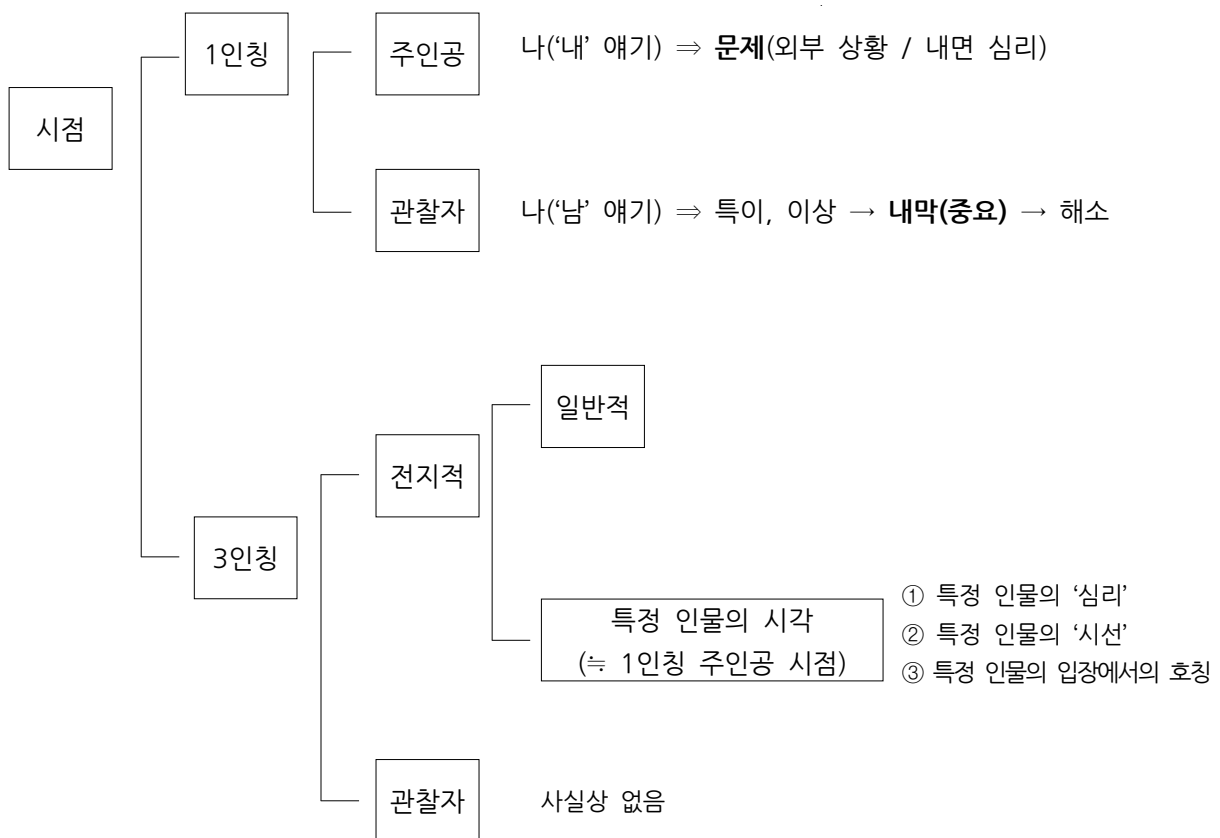
1. 현대소설 TEXT 분석(좁/혀/가/기)

1) <내용 설명형 보기> → [앞부분의 줄거리] → 지문 순서대로 읽으며 좁혀가기

2) 장면 단위로 끊어 읽기

(시간, 공간, 새로운 인물 등장, 새로운 사건의 시작)

3) 서술자(매우 중요)



[주요 설명]

- 소설을 읽다가 '나'가 보이면 체크, 읽다보니 '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의 문제 상황을 찾으며 읽는다.

- 소설을 읽다가 '나'가 보이면 체크, 읽다보니 '남' 얘기를 하고 있으면,

① 남은 이상하거나 특이할 것이다.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② <중략> 이후의 '내막'에 특히 집중한다.

- 3인칭에는 전지적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있으나 수능에서 관찰자는 무시하자.

- 전지적 시점에는 일반적 전지적 시점과 특정 인물의 시각이 있다. 수능에서 너희들이 3인칭 소설을 본다면, 특정 인물의 시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특정 인물의 시각은 지문 전체일 수도 있고, 지문의 일부일 수도 있다.

- 특정 인물의 시각은 1인칭 주인공과 유사하다. 즉 특정 인물에게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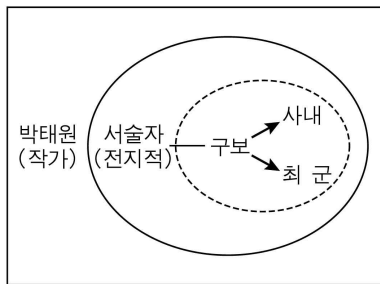
[참고] 특정 인물의 시각(특정 인물의 시각은 3인칭이다. 잊지 말기!)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영 거추참한 형세로 **며느리(=민 노인 입장에서의 호칭)**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복을 치셨다면서요.” /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민 노인의 심리).



[특정 인물의 시각]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특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4) 현대 소설을 읽는다는 것 =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

- ① 인물의 발화가 길면 : 감속하며 차분히 읽는다.(긴 발화 안에 상황과 심리가 다 있다.)
- ② 내면 서술이 길면 : 내면 서술이 길다는 것은 현대소설에서는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은 것이다. 즉 하나의 심리를 그냥 주절주절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 파악 후 가속하며 내려가면 된다. 사실 같은 심리를 표현만 달리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인물의 행위나 발화가 반복되면 : 중요하다. 체크해두면 좋다.

5) ‘변화’는 언제나 중요하다.

① 시간 > 공간 변화

- 현대소설에서는 시간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순차적인 것보다 회상 혹은 역전적 구성일 때 중요하다.
- 공간 변화는 중요한 경우, <보기>를 통해 물어볼 수 있다.

② 인식과 태도의 변화(=주제)

- 현대소설에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소설의 주제다.
-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는 두 가지가 수반된다. 1) 계기 2) 변화의 조짐
- 계기는 소설의 주된 사건이 되고, 변화의 조짐은 밑줄을 쳐서 이 행위나 소재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본다.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5주차 문학 수업용 해설]

[이승모]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 ①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 ②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 ③ 현대시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5주차] 문학 수업 지문

1인칭 주인공 시점 수업) 오정희, 유년의 들
자기 주도 학습 과제) 오정희, 옛 우물

1. 현대소설 TEXT 접근의 기본 전제

- 소설 :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서술자 있음) / 자아와 세계의 대결(= 갈등)
- 소설 지문은 발췌문이다. / 따라서 (잉여)가 많다. → 가속 or 명료화 → 쭈/허/가/기!!
- 소설 지문을 읽는다는 것 :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
- 1) 상황 ① [앞부분의 줄거리] 1) 상황 2) 관계 3) 성격
 - ② 내용 설명형 <보기>
 - <보기>부터 읽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상황이나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자
- 2) 심리 → 보편적

현대소설 해설을 읽기 전, 현대소설 TEXT 분석 필기노트를 읽어보고 이 해설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내용 주요 사항]

- ① 현대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일이다.
- ② 현대소설은 발췌문이다. 잉여가 많다. 따라서 쭈허가며 읽는 것이 좋다.
- ③ EBS 연계(전체 줄거리 학습) → <보기> 읽고 → [앞부분의 줄거리] 읽고 지문을 들어가면 오히려 못 읽기가 더 힘들다.(쭈허가기)
- ④ 장면 단위로 끊어 읽기
- ⑤ '나' → '내' 얘기 → 반드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
- ⑥ 시간 변화는 언제나 중요하다. 시간은 거꾸로 갈 때 특히 중요하다.

[참고] 현대소설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문학의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조금 깊은 얘기도 해 볼 겁니다. 물론 지역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다만 우리가 시험 시간 안에 이해하기는 힘든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출제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단, 선택지를 매개로 물어보는 수준을 조절할 뿐입니다.

<보기>부터 읽고 지문을 읽습니다.(쭈허가기)

< 보 기 >

이 소설에서 전쟁 체험인 과거의 기억은 상징적 사물과 이미지의 재현으로 구현된다. 문학 작품에서 '거울'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나'를 보여주거나, 현재와 다른 시간과 연결하고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거울에 비친 현실 모습은 상징적 의미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내용 설명형 <보기>를 먼저 읽으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내용 설명형 <보기>는 보통 '이 작품에서~', '눈이 오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보기>를 가볍게 읽으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이다.

- ① 전쟁 - 6.25 전쟁일 것이다.
- ② 과거의 기억 - '회상'이 존재할 것이다.(중요하다.)
- ③ '나' - '1인칭 소설이다.'

시간이 조금 오래 됐지만 4주차에 주었던 아버지의 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면, 6.25 전쟁과 관련된 소설일 거라고 바로 쭈힐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전쟁 = 6.25 전쟁이네.'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6.25와 관련된 소설이 수능에 출제되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결국 6.25 전쟁 관련된 소설이 출제되면 보통 흐름은 두 가지 양상으로 흘러간다.

- ① 전쟁의 폭력성, 이념 대립으로 인한 비인간적 현실 고발
- ② 용서, 화해, 포용 등 인간성 회복(허미니즘)

그러니까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은 대체로 ① 당시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거나, ②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시험 때 이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기보다는 아예 공통감, 즉 무의식에 잘 넣어두고, EBS 연계 공부를 할 때든 시험 때든 6.25 관련 지문이 라면 이렇게 쭈허가 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양이 오빠의 이마와 목덜미를 붉게 물들이며 방을 깊숙이 가로 질렀다.

- ① 내가 기억하는 한의 그 시간은 늘 그랬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하나는 해야 하고, 하나는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보이면 고맙다.
- ② 일단, '내가'에는 동그라미를 친다. 1인칭이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시간, 즉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 거니까, 1인칭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 좋다. 물론 1인칭 관찰자로서 과거로 돌아가 남에 대한 얘길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읽어보면 결국 자기 어렸을 때 얘기가. 즉 '나'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외적 상황이든 내면 심리든. 이걸 했으면 좋겠다.'
- ③ 기억하는 그 시간이 늘 그랬다고 한다. 이 다음부터는 회상이다. 이거는 해야 한다. 시간이 거꾸로 가면 중요하다.

국어 영역

④ ‘늘’이라는 말에 표시하자. 이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게 상관없겠지만,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다. 소설에서 어떤 상황이나 발화가 반복되면 중요하다. 쉽게 말하자. 일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즉 소설에서 어떤 상황이 언제나 지속되고, 어떤 사람이 계속 같은 행동이나 발화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의 성격인 것이다. 이호철의 ‘탈향’이라는 소설에서 친구 네 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부 북한에서 넘어와 부산에서 힘들게 사는 고향 친구들이다. 이중, 하원이라는 친구는 나와서 하는 게 딱 두개밖에 없다. 1) 눈이다! 2) 찡찡.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눈을 보기가 힘들니까. 근데 자기 고향에서는 눈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눈을 보면 고향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고향 생각 날 때마다 찡찡댄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이게 된다면 이후에 펼쳐질 상황은 사실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다.

----- 끊어 읽기

합석지붕이 흐를 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저녁 햇빛이 칼처럼 방 안에 깊숙이 꽃힐 즈음이면 어머니는 화장을 시작하고 오빠는 창가에 놓인, 붉은 꽃무늬의 도배지 바른 책상 앞에 앉아 꼼짝 않고 소리 높여 영어책을 읽었다. 나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갖가지 화장품이 담긴 병들을 만지작거리거나 창을 통해서 멀쩡히 보이는 개울의 다리과 신작로, 그리고 더 멀리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국민학교의 창을, 점점이 붉은빛이 묻어나는 새털구름들을 바라보며 이유가 분명치 않은 조바심으로 ①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은밀히 조성되어 가는 팽팽한 공기를 지켜보았다.

캔 유 텔 미 핫 히 이즈 두잉? 오빠가 발은기침으로 목청을 돋우었다.

파마한 머리칼이 얇아졌는지, ②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빠르게 빗질을 하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거울에 바짝 머리를 들이대었다. 흰 머리가 뿔혀 나왔다.

벽에 버티어 놓은 거울에, 등지고 앉은 오빠의 몸이 고집스럽게 담겨 있었다. 뿔혀 나온 새치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잠시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햇빛을 피하는 시늉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거울을 옮겨 놓고 화장을 계속했다. 나무레 위에 쌓아 놓은 우리들의 때 묻은 이부자리가 거울면에 들이쳤다. 오빠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③거친 손짓으로 책장을 넘기는 바람에 날고 눅눅해진 종이가 힘들게 찢겨지는 소리가 났다. 오빠의, 긴장으로 경직된 등이 제풀에 움찔했다.

어머니는 ④등 뒤의 작은 지위 — 그러나 오빠 나름대로는 필사적인 — 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침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둥글게 눈썹을 그렸다. ⑤(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호기심과 찬탄으로 거울 속에서 점차 나팔꽃처럼 보얗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① 어차피 현대 소설은 상황과 심리 파악이다. 특별히 어떻게 읽는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읽으면서 상황 파악 잘하고, 심리 파악 잘하면 된다. 내가 항상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방법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방법은 있다. 나도 방법을 설명하니까. 단, 이 방법은 상황 파악을 조금 더 잘하게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분히 읽으면서 일단 상황 파악이나 잘해보자. 아! ‘나’에겐 지금 문제가 있다.

② 지문의 ①~⑥까지 중 다 들어왔어도 되고, 들어오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최소한 파악했어야 하는 상황의 ‘선’을 따져보자. 우선 어머니는 화장을 하고 있고, 오빠는 영어책을 읽고 있다. 이것을 못 읽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①~⑤의 어떤 것이 들어왔든 읽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들이 어떤 상황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다. 즉 어머니와 오빠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갈등이 있는 것이겠지. 다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왔다는 등신대(等身大)의 거울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흠 없이 온전하고 훌륭한 물건이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남루해져 가는 우리들의 가운데서 거울은, 어머니가 매일 닦는 탓도 있지만,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다. 그 이물감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실체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좁은 방 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게으르게 눈을 껌벅이며 잠에서 깨어나서도, 싸움질을 하다가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도

(A) 문득 눈을 들면 방의 한구석에 버티어 선 거울이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에게 경원과 먼구스러움을 느껴 옆으로 슬쩍 비켜서거나 남의 얼굴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거울은 기울여 놓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작게도 크게도 길게도 짧게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었다.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없을 때면 공공대며 거울을 옮겨 놓고 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놀이를 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연극놀이를 했는데 내용은 늘 똑같았다.

(중략)

----- 끊어 읽기

[너와 나의 실전 독해]

① 사실 실전에서는 별 특별한 것 없이 읽어 내려갈 거다. 다만 머리에 계속 애가 문제가 있을 텐데 하시는 분들은 ‘남루해져 가는 우리들’, ‘언제나 좁은 방 안’을 보며 가난한가보다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어머니가 없을 때면 나는 연극놀이를 했다는 것. 내용이 늘 똑같다는 것으로 보아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정도 하면 많이 보인 거고, 그냥 흘러내려 갈 거다. 소설은 가속도 필요하니까.

② <중략> 이후부터는 ‘나’의 문제가 쏟아질 거다. 사실 대부분의 현대 소설의 경우 <중략> 이전보다는 <중략> 이후가 중요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략> 이전에 뿌린 떡밥도 회수해야 하고, 어쨌든 본론은 이후에 나올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문제 상황 찾기 연습해보자.

나는 낮의 일들이 꼭 꿈속의 일처럼 아주 몽롱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①밤마다 술 취해 오는 어머니, ②(더러운 이불 속에서 쥐처럼 손가락을 빨아 대는 일) 따위가 한바탕의 긴 꿈만 같이 여겨졌다. 진짜의 나는 안타까이 더듬어 보는 먼 기억의 갈피 째에서 단편적인 감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키가 몹시 컸다. 아니 그것은 덩치 큰 오빠를 향해 하던, 아버지를 쫓 빼었다는 할머니의 말에서 비롯된 연상인지도 몰랐다.

국어 영역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첫 번째 문제 상황이다. 어머니가 밤마다 술 취해서 온다. 이게 시험 상황에서 글을 읽는 와중이라면 별 문제 같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나'의 유년 시절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일 것이다.
- ② 두 번째 문제 상황이다. 애는 왜 대체 더러운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는 걸까?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 걸 거다. 엄청난 문제다.
- ③ 그 와중에 아버지를 연상하려 한다. 일단 내려가자.

----- 끊어 읽기
저녁을 먹은 후 바람이 서늘해지면 아버지는 나를 목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의 무릎을 타면 어찌나 놀던지 나 자신 풍선처럼 공중에 둥실 떠오르듯 눈앞이 어지러이 흔들렸다.

곧 동생이 태어날 거다. 아버지는 내 넓적다리를 꼭 쥐며 노래 부르듯 말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단다.

꼭 잡아,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머리를 잡으면 손에서는 짙짙뽀뽀한 머릿기름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내게 연약한 넓적다리, 혹은 발목을 잡던 악력(握力), 막연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 땀으로 젖어 있던 등 허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역시 내 상상이 꾸며 낸 더 먼 꿈속의 일은 아니었을까.

----- 끊어 읽기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엄밀히 구분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읽지는 않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명한다. 일단 갑자기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에 대한 얘길 하고 있다. 이미 글을 읽은 후에 이걸 보는 것 이겠지만, '나'가 서술하고 있는 유년 시절에는 지금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왔다. 이것을 '더 과거'라고 지칭하겠다. 중요한 건 '더 과거'로 가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지문을 읽을 때 인지하거나 물어보면 최소한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소설 자체가 현재의 '나'가 과거의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과거의 '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 과거의 '나' 역시 과거에서 아버지가 있던 '더 과거'를 떠올려 본 것이다. 이걸 우리가 물어보면 판단할 수는 있어야 한다.
- ② 아버지는 내게 연약한 넓적다리, 혹은 발목을 잡던 악력(握力), 막연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 땀으로 젖어 있던 등 허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역시 내 상상이 꾸며 낸 더 먼 꿈속의 일은 아니었을까
이 부분은 사실 결과부터 얘기하면 현재의 '나'가 과거를 생각하며 쓴 서술이다. '그때 그랬었던 것 같다.' 뭐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구분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일단 패스. 그러나 현재의 '나'가 바라본 그때의 '나'의 심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③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 두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정다운 기억, 희망 없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얼마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매일 술 취해 돌아오는 어머니를 향해, 다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차갑게 협박하는 오빠까지도.

우리가 입자 없는 닭의 맛에 길들여지듯, 어머니의 지갑을 더듬는 손길이 점차 담대해지고 빼내는 돈의 액수가 많아지듯, 할머니가 단말마의 비명도 없이 도살(屠殺)의 비기(秘技)를 익혀 가듯, 그리고 종내는 눈의 정기만으로도 닭

들이 스스로 죽지 밑에 고개를 묻고 너부러지듯 아버지 역시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있던 그 긴 시간의 갈피 짬마다 연기처럼 모호히 서린 낯설음은 새로운 전쟁으로 우리 사이에 재연(再燃)될 것이기에 차라리 그림고 정답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희망 없는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아니었는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들려 오는 대포 소리는 고즈넉이 가라앉은 이 마을에 문득 전쟁을 상기시켰고, 드문드문 흘러드는 피난민들은 아직도 바깥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문제 상황에 집착하면, 문제가 많이 보인다. 지문의 ③ 역시도 '나'에게는 문제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다.
- ② 생각해보자. 과거의 '나'는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봐야 인형놀이 하는 어린 아이이다. 그런 어린 아이 입장에서, 아빠는 없고, 엄마는 매일 술 취해서 오고, 그와중에 배고프고, 이건 문제다.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 ③ 더 최악은 지문의 ④다. 결국 '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될 것임을 뜻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지금이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다. 결국 고3이라는 1년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힘든 건 오늘 하루를 끝내고 내일이 온다 해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된다는 것일 거다. 반복은 사람을 권태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버텨야 한다. (갑자기?)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힘내시라고.)
- ④ 아무튼 정리하자면, 소설은 어차피 상황과 심리 파악이다. 즉 상황 파악 잘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된다. 다만 '나'가 보이고 조금 읽다 보니 '내 얘기를 하는 중이라면, 우리는 문제 상황만 찾아가며 좁혀 들어가면 된다. 문제 상황을 찾으려다보니, 우리는 이 어린 아이가 어떤 상황에 지금 닥친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이다.

- 오정희, 「유년의 뜰」 -

[사고의 진화]

- ① 지금부터는 실전에서 보였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할 거다. 물론, 보였어도 이런 의미인 줄은 몰랐을 것이지만, 문학적 시야를 넓혀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평가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현대소설 개념 강좌 때만 조금 깊은 설명을 해보겠다. 일단 여러분들이 날 도와주어야 한다. 밑에 다시 발췌한 부분을 읽고, 혹시 보인다면, '진짜 문제' 즉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수준의 문제를 찾아보자.

③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 두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정다운 기억, 희망 없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얼마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매일 술 취해 돌아오는 어머니를 향해, 다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차갑게 협박하는 오빠까지도.

우리가 입자 없는 닭의 맛에 길들여지듯, 어머니의 지갑을 더듬는 손길이 점차 담대해지고 빼내는 돈의 액수가 많아지듯, 할머니가 단말마의 비명도 없이 도살(屠殺)의 비기(秘技)를 익혀 가듯, 그리고 종내는 눈의 정기만으로도 닭

국어 영역

시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있던 그 긴 시간의 갈피 째마다 연기처럼 모호히 서린 낯설음은 새로운 전쟁으로 우리 사이에 재연(再燃)될 것이기에 차라리 그림고 정답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희망 없는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 아니었는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들려 오는 대포 소리는 고즈넉이 가라앉은 이 마을에 문득 전쟁을 상기시켰고, 드문드문 흘러드는 피난민들은 아직도 바깥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②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것이 실전에서, 즉 처음 읽을 때도 보였는지 굳이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도 각인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 ③ 바로 ㉠이다. 사실 출제자는 의미 없는 곳에 밑줄을 치지 않는다. ㉠이 왜 진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따져보자.
- ④ ㉠은 좀 너무한 것 아니니? 예를 들어 너희가 전쟁에 나갔다고 치자. 전쟁 나갔는데 가족이 널 안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이걸 좀 너무하잖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나'와 '나'의 가족들은 사실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그럴 사람으로 치부하는 중이야. 이걸 문제지.
- ⑤ 다만, 이게 다른 문제에 비해 이렇게 많이 중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다. 그럼 우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나'와 '나'의 가족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꺼리는지부터 알아볼까.
- ⑥ 사실 어머니는 바람이 났다. 그럼 그걸 누가 아는 걸까? 그렇지. 오빠가 안다. 이쯤 해서 오빠의 영어 대사를 재빨리 확인하자.(소름...) 어쨌든 엄마의 잦은 외박은 오빠와의 갈등을 초래한다. 다만 어린 '나'는 그땐 그걸 몰랐던 것뿐이다. '우리 모두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아니었는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것은 어린 '나'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 즉 다 큰 '나' 쉽게 말해 현재의 '나'가 그 당시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다고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이라는 거다.
- ⑦ 정리하자면 이렇다. 밤마다 술 취해 오는 어머니, 손가락만 빨아대던 일, 아버지의 부재, 전쟁이 계속되는 것들은 모두 과거의 '나'에게 닥친 문제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했던 일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본 후, 문제로 인식한 부분이라는 거다. 즉 다 커서 보니 '이게 더 문제였구나.' 한 거다. 그럼 이게 왜 더 큰 문제였겠나. 결국 전쟁이라는 상황은 한 가족을 붕괴시켰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라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즉 이것이 결국 '전쟁으로 인한 유년의 상처'라는 주제를 형상화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 ⑧ 물론 시험 때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는 출제자는 알고 있다. 따라서 출제자는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 단 다짜고짜 물어볼 수는 없으니 물어보는 수준을 조절한다. 그것이 3번 문제의 ④번 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학 1번 문제 답 : ④

④	O (정답)	비유적 수식어라는 말을 보면 바로 직유를 떠올리면 된다. 무조건 직유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현대소설에서는 그냥 직유를 찾는 게 맞다. 출제자가 이 긴 지문에서 우리들에게 은유나 의인을 찾게 할 리 없다. 물론 찾을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직유 찾고 답을 ④로 고르는 게 맞다.
---	-----------	---

문학 2번 문제 답 : ①

①	X (정답)	사실관계다. 지문 돌아가서 앞뒤 정독하고 판단만 해주면 된다. '붉은빛이 묻어나는 새털구름들을 바라'보는 것은 / 어머니와 오빠의 갈등에 대해 무관심한 나의 태도를 보여준다. 일단 선택지를 이렇게 끊고, 지문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읽어보니 '나'는 '지켜보았다.' 즉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	-----------	--

문학 3번 문제 답 : ②

<p>하나는 기억해두자.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다른 방식을 우리는 회상이라고 한다. 서술하는 시간은 현재의 시간이 되고 서술되는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된다. 즉 서술 자아는 현재의 '나'가 되고, 경험자아는 과거의 '나'가 된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헛갈리지 않는다.</p>		
②	X (정답)	㉡을 돌아가서 읽어보면 결국 엄마와 오빠 사이의 갈등에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얼굴이 예쁜 어린 아이의 모습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은 경험자아이지 서술자아가 아니다.
④	O	중요하면 물어본다. '더 과거'는 물어본다. 지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는다. 아버지가 부재하기 전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⑤	O	중요하면 물어본다. ㉠에서 서술자아는 과거의 사건 즉, 아버지가 부재했던 시간에 대해 '우리 모두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 용서하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었는지'라고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자아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서술되는 시간'의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아'의 서술이다.

문학 4번 문제 답 : ⑤

⑤	X (정답)	사실관계 혹은 지문의 맥락을 고려하면 된다. ⑤ '기울여 놓기에 따라'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는 거울은 /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의지를 드러낸다. 끊어놓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는 거울은 부분을 읽고 따져 봐도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의지는 없을 거다. 다만, 문학에서 감이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았을 수 있다. 지문 전체에 그냥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자. 과거의 '나'는 어렵도 너무 어렵다.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을 리 없다.
---	-----------	--

오경희의 옛 우물은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연습하라고 넣어진 것이니 스스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 강의 학생들에게 따로 수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어 미안합니다. 한수달 원고 작업에 현장 강의 일정까지 너무 바빠 시간이 정말 없었다는 핑계를 대봅니다.
4월 한달을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것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교들이 계정을 만들어준 거라 계정 이름이 조금 민망하지만.
www.instagram.com/mo.mo_land/
팔로우 하시면 지금은 미흡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올려 볼 생각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